

김우중 회장의 기업가정신

2022

박영렬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김우중의 끝나지 않은 도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가라

• 박영렬 지음 •

“
청년의 꿈
세계를 품다
”



한국경제신문



글로벌 기업가 도전을 위한 십계명(1)

1. 개발도상국 기업인이라는 생각을 가져라. 교과서에서는 선진국 기업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 다른지, 무엇을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2. 철저히 현지화하라. 우리가 **글로벌**하게 나아가면 그 종착지는 로컬이 된다. 현지에 적응할 수 있어야 글로벌이 가능해진다.
3. 비즈니스의 언어로 계산하고 **소통**하라. 잘된 소통은 정보와 **신뢰**와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가는 어떤 만남과 어떤 소통에서도 항상 비즈니스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계산하고 준비한 자만이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4.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실행할 땐 리스크를 관리하라. 기업가에게 긍정의 마인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과 동일하다.
5. **신용**을 목숨처럼 여겨라. 비즈니스는 신용에서 비롯되며, 신용은 이익을 함께 **나눌** 때 극대화된다.

글로벌 기업가 도전을 위한 십계명(2)

6.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라. 대충해서는 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얻으려면 **절실**해야 한다. 마음가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7. **창조**적으로 끊임없이 성취를 지향하라. 작은 소유에 안주하려 할 때 비즈니스는 더 이상 **창의**성을 갖지 못한다.
8. 명예를 위해 **헌신**하라. 비즈니스의 끝에 남는 것은 **명예**밖에 없다.
9. 사람을 키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나온다.
10. 조국을 동반자로 삼아라. **조국**은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에서 힘들고 고달플 때 기댈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이다. 조국이 잘돼야 글로벌 비즈니스도 힘을 얻는다.

- 김우중 회장의 글로벌 기업가를 위한 출사표 -

* 출처: 박영렬,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가라”, 한국경제신문사, 2017

대우그룹의 사훈

- 창조

- 도전

- 희생

대우 정신(1)

- 도전정신

김우중 회장의 '도사론'은 대우 사람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그는 10미터가 넘는 높은 담을 훌쩍 뛰어넘는 도사를 예로 든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의 비상한 능력에 경탄하며 부러워하고 존경을 표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 높은 담을 뛰어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김우중 회장은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도 그 도사는 처음에는 1미터 높이에서부터 시작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 그 결과 2미터, 3미터, 그리고 마침내 10미터 높이의 담벼락까지도 쉽게 넘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을 거라고. 그는 무엇이든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대우 사람들이 말하는 도전정신이다.

* 출처: 대우세계경영연구회, “대우는 왜?”, 북스코프, 2012

대우 정신(2)

- 창조정신

꿈이 있는 자만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법이다. 대우를 창업할 당시 서른 안팎의 ‘무서운 아이들’에게는 남다른 꿈이 있었다. 그들은 국내기업들이 하지 않는 사업을 통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길을 열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수출과 금융이었다. 그들은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 세계적인 무역과 금융 복합기업을 만들고 싶었다. 사업 초기에 대우의 꿈은 하나씩 이루어져 나갔다. 그러나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던 정부의 요청으로 대우는 부실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그 꿈을 잠시 보류하게 됐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그들은 ‘세계경영’이라는 이름의 큰 꿈을 다시 추구하기 시작했다. 따라 하기보다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이왕 할 바에는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가 대우가 말하는 창조정신이다.

* 출처: 대우세계경영연구회, “대우는 왜?”, 북스코프, 2012

대우 정신(3)

- 개척정신

창의적 발상만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대우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 발상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회를 얻으려면 먼저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대우는 개척할 시장이 있다면 지구촌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나섰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장을 성취해냈다. 늘 준비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우는 한국 사람이 지구 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영리하고 성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준비하고 도전하면 못 해낼 것이 없었다. 대우에서 개척의 의미는 준비된 자가 주어진 기회를 성취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다.*

* 출처: 대우세계경영연구회, “대우는 왜?”, 북스코프, 2012

대우 정신(4)

- 계승정신

‘가난이야 한갓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노래한 서정주의 시는 적어도 대우 사람에게는 감동적이지 못했다. 그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했다. 앞 세대의 희생으로 다음 세대가 더욱 잘 살기를 바랐다. 어느 나라나 그런 희생의 세대가 존재할 때 부강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굶주리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켜준 부모 세대의 희생 덕분에 그들이 경제개발의 주역이 됐다면, 이제 자신들도 후대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인 한국의 마지막 세대가 되자. 그리고 후대를 반드시 선진 한국의 첫 세대가 되게 하자.”* 대우의 사훈은 창조, 도전, 희생이었다.

* 출처: 대우세계경영연구회, “대우는 왜?”, 북스코프, 2012

김우중 회장의 젊은이에 대한 사랑

젊은이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지구촌이라 불릴 정도로 좁아졌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이 있고,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도 많다.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해내는 용기 있는 개척자들에 의해
역사는 조금씩 전진해온 것이 아닌가.
젊은이여! 우주를 생각하고 큰 뜻을 품어보라.

- 젊은이는 **가능성**의 존재이다
- 젊은이는 **꿈**을 꾸어야 한다
- 젊은이는 **창조**적으로 생각한다
- 젊은이는 **도전**해야 한다
- 젊은이는 **희생** 정신을 가져야 한다
- 젊은이는 **더불어** 산다
- 젊은이는 **정직**해야 한다
- 젊은이는 **겸손**해야 한다

• 출처: 김우중,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내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 김영사,
대우세계경영연구회, 1989

글로벌 경쟁의 변화

2008-2012	“글로벌 리더십 변화 시대 ”
2013-2017	“글로벌 리더십 춘추전국시대”
2018-2022	“글로벌 G2 시대”
2023-2027	“글로벌 재편의 시대”
2028-2032	“글로벌 아시아 시대”

Cebr World Economic League Tables for 2030 and 2031

2030			2031		
Rank	Country	GDP (\$bn)	Rank	Country	GDP(\$bn)
1	China	34,338	1	China	35,262
2	United States	32,996	2	United States	33,656
3	India	10,133	3	India	10,629
4	Japan	5,087	4	Japan	5,094
5	Germany	4,720	5	Germany	4,767
6	United Kingdom	4,622	6	United Kingdom	4,691
7	Korea	3,532	7	Korea	3,638
8	Brazil	3,368	8	Brazil	3,491
9	France	3,311	9	France	3,362
10	Canada	2,750	10	Canada	2,788
11	Indonesia	2,560	11	Indonesia	2,628
12	Russia	2,431	12	Mexico	2,433
13	Italy	2,393	13	Italy	2,428
14	Mexico	2,390	14	Russia	2,422
15	Australia	2,049	15	Australia	2,066
16	Saudi Arabia	1,848	16	Saudi Arabia	1,848
17	Spain	1,775	17	Spain	1,803
18	Turkey	1,620	18	Turkey	1,704
19	Philippines	1,213	19	Philippines	1,262
20	Netherlands	1,176	20	Netherlands	1,195
21	Poland	1,061	21	Poland	1,083
22	Switzerland	1,025	22	Switzerland	1,036
23	Malaysia	993	23	Taiwan	1,004
24	Taiwan	988	24	Malaysia	991
25	Nigeria	967	25	Nigeria	968
26	Islamic Republic of Iran	896	26	Islamic Republic of Iran	916
27	United Arab Emirates	872	27	United Arab Emirates	896
28	Thailand	767	28	Thailand	771
29	Sweden	730	29	Sweden	748
30	Hong Kong SAR	728	30	Hong Kong SAR	738

복합 위기로 인한 대전환의 시기

최근 복합 위기들

- 4차 산업혁명
- 코로나 팬데믹
- 글로벌 인플레이션
- 글로벌 공급망 붕괴
- 신냉전 도래
- 자국 패권주의
- 기후변화

- **E**nergy(열정)
- **S**trategy(전략)
- **G**reatness(위대함)

김우중 회장과 대우그룹의 역사

- 1936년: 김우중 회장 출생
- 1960년: 한성실업주식회사 입사
- 1967년: 대우실업주식회사 설립
- 1989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내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출간
- 1999년: 대우그룹 해체
- 2012년: GYBM 프로그램 시작
- 2019년: 김우중 회장 영면

김우중 회장의 기업가정신 ESG(1)

사업보국을 이루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창조, 도전, 희생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 **E**nergy(열정)
- **S**trategy(전략)
- **G**reatness(위대함)을 추구하다.

“김우중 회장의 기업가정신 중심에는 젊은이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자는 위대함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결하였다.”

-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창출이 요구됨
- 세계경영을 선도할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부활이 필요함
-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신 기업가정신의 정립이 필요함